

초대석

제55회 행시(행정직) 전체 수석합격 이영희

- 1984년 6월생
- 김천여자 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 제55회 행시(행정직렬) 전체 수석합격



Q 수석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 행정고시(행정 5급 공채)에서 전체 수석을 차지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석합격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A 제가 수석이라는 과분한 영광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아직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모두 열심히 하셨을텐데 저에게는 큰 행운이 따랐던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설레임과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항상 부족한 사람임을 생각하며 노력하는 공직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수석비결이나 공부하시면서 꼭 지키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

A 수석을 목표로 공부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수험생과 비교하였을 때 특별히 비결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일 아침 그 날 해야 될 공부량을 구체적으로 정해두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였던 점이 합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가 잘 되지 않는 날에는 조금 더 쉬되 최소한의 해야 될 양은 지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Q 서울대 법과대학 출신인 것으로 압니다. 법대출신이면 보통은 사법시험을 준비하는데, 행정고시를 통한 행정공무원으로 진로를 생각하게 된 동기가 궁금합니다.

A 법학과를 선택하기 전부터 행정고시에 도전하여 공직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법을 전공한 사람이 사법시험을 통해 법관이나 변호사가 되는 것도 훌륭한 길이지만, 정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 할 수 있는 행정 공무원이 될 수 있다면 저에게 더욱 보람과 긍지를 느끼면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공부하면서 법이라는 것은 재판을 통한 분쟁 해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적인 부분, 특히 행정영역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미흡하지만 저의 전공이 공직 생활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Q 합격까지의 1차와 2차 공부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A 처음 1차 시험에 합격했던 해는 2009년도부터였고, 그 이후에 1차 시험에는 다행히도 계속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PSAT 시험에서 불합격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수험기간에 1차 시험 두달 전부터 기출문제 풀이, 모답 풀이를 반복하면서 1차 공부만 하였습니다.

2차 시험은 2010년도에 처음으로 합격하였으나, 3차 면접에서 불합격하였습니다. 올해 다시 도전하여서 최종 합격하기 까지 4년이 조금 넘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들었는데, 끝까지 꿈을 놓지 않으려 노력했던 것이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Q 공부과정 중 슬럼프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A 처음 2차 시험에 응시하였던 해에 5월에는 공부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치러 낼 자신이 없었고, 집중도 잘 안되고 불면증에 걸리는 등 슬럼프가 찾아왔었습니다. 촉박한 기간내에 실력을 눈에 띄게 향상시키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슬럼프를 슬기롭게 극복해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첫 2차 시험에 불합격하고 난 다음, 평소에 부지런히 실력을 쌓아나가야 자신감도 가질 수 있고, 슬럼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작년 3차면접에서 불합격한 이후에도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많

이 방향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불합격의 이유라고 생각했던 저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공직자가 꼭 되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과정을 겪으면서 공직자가 되고자하는 생각에 확신이 더해져서 더욱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행정고시 수험과정에서 가장 어려웠거나 고생한 과목과 그 과목의 대처방법(공부방법)을 알려주세요.

A 경제학이 저에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작년까지 내내 경제학을 40점대로 받았고, 올해도 그 점수라면 합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해서 다른 과목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습니다. 다른 과목 순환이 돌아갈 때에도 경제학 문제풀이 스터디를 따로 진행하였고, 매일매일 문제를 최소한 하나라도 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 출제 가능성이 낮지만 불의타에 대비하기 위해서 버리지 못했던 내용들은 시험에 나와도 제대로 쓰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과감히 버렸습니다. 대신 기본적인 이론과 문제를 완벽히 이해하는 마음가짐으로 기출문제를 풀면서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하였습니다.

Q 행정고시에서도 예외없이 면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면접준비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A 면접은 스터디를 통해서 준비하였습니다. 작년에 한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첫해보다는 더 방향성 있게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면접 설명회와 면접 관련 책등을 보면서 면접의 목적에 대한 이해, 면접 준비 방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합격하신 분들께 부탁 드려서 구체적인 스터디 진행 방식과 토론방법, 개인 발표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더불어 다른 스터디그룹과의 실전 연습을 통해서 저의 단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Q 행정분야 중 어느 쪽으로 진출하고 싶은지.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A 최근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복지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성장 중심의 발전 패러다임에서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추구해야할 시기에 놓여있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복지 부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실무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연수를 받는 기간 동안에 여러 부처에 대해서 공부하고,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더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Q 공무원으로서의 포부는 어떠신지요.

A 공무원은 정책을 통해 국민께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정책이 큰 파급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투명하고 생산적인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 없이 고민하는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가진 권한을 특권이라 인식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서만 행사하는 정직한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Q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A 저를 믿어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잘 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신 YHC7421님, 포기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게 해준 우리 8남매(현병천, 이성희, 고승진, 정은수, 정지윤, 임희중, 송수혜), 힘들 때마다 이야기 들어주는 친구들, 훌륭한 가르침주신 은사님들 저를 이 길로 이끌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공직자가 되어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